

# 생동하면서도 조형예술성이 높은 얼음의 세계

## ◆ 평양얼음조각축전 - 2018 진행 ◆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얼음조각축전-2018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축전은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크고 전시형식도 특색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저녁에는 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거리의 가로수들이 불장식으로 아름다운 《서리꽃》야경을 펼쳐놓고 광장에 전시된 얼음조각들이 색조명으로 황홀한 모습을 한껏 드러내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얼음축전에는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하여 조선인민군창작사, 평양시안의 여러 구역들과 교육기

관 그리고 조각애호가들이 창작한 많은 얼음조각들이 전시되었다. 축전장에는 백두밀림속에 웅건장중하게 솟아있는 정일봉과 떠오르는 아침해를 형상한 얼음조각, 백두산의 해돋이를 형상한 얼음조각이 전시되었다. 특히 백두산의 해돋이를 형상한 얼음조각은 천지호반과 태양, 밀림에 대한 색조명을 보장하여 그 예술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축전에는 투명하게 맑은 얼음으로 소나무와 참매를 형상한 《아침의 나라》도 전시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회주의강국의 강용한

기상을 누리에 떨치며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의 70층살림집을 비롯한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형상한 얼음조각들은 주체조선의 승리적전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르는 대륙간탄도로켓들을 형상한 얼음조각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온 격동의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만리마시대에 태어난 새형의 트랙트르, 화물차

동차들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생산한 명제품, 명상품들을 형상한 얼음조각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갈 공화국인민들의 의지를 잘 반영하였다.

얼음조각축전에는 유치원어린이가 내놓은 사과바구니얼음조각도 전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칠색령롱한 갖가지 색깔의 불장식과 어울려 신비한 얼음의 세계를 펼친 축전장은 새해를 맞은 사람들에게 보다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설경경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었다.

본사기자



## 겨울철 건강유지를 위한 몇가지 방법

겨울철에는 흐린 날씨가 사람들의 기분상태뿐 아니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심달린다. 해빛은 인체에서 기쁨관련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비타민D를 생성하며 생체리듬을 정상화하고 잠의 질을 개선한다.

최근에 학자들은 해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심장병, 종양질환과 같은 병을 초래된다는것을 밝혀냈다.

겨울철 건강을 유지하자면 첫째로, 아침식사를 옳바로 해야 한다. 음식을 통해 비타민D를 많이 섭취

하여야 한다. 비타민D는 특히 바다물고기의 간에 많이 들어있다. 닭알과 우유, 꿀, 굳은열매와 말린 과일도 먹으면 좋다.

둘째로, 하루종일 집안에 있을 때에는 창문을 깨끗이 닦아 해빛이 더 많이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한다.

본사기자

셋째로, 산보를 하다가 바깥공기를 쏘일수 있다. 자외선의 절반이상이 구름층을 통과한다. 자외선의 작용에 의해 인체에서는 일산화질소가 생성된다. 일산화질소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확장시키며 혈압을 낮춘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에는 룡두지짐가공법도 있다.

룡두지짐은 룡두를 물망질하여 기름에 등글넙적하게 지져낸 민족음식이다.

룡두는 세나라시기 이전부터 재배되었고 룡두지짐의 가공방법도 비교적 단순하다. 옛 기록에 의하면 17세기 말엽의 룡두지짐은 되직하게 간 룡두지짐감을 변철에 조금 떠 놓은 우에 삶은 밤과 꿀을 버무려놓고 다시 지짐감을 섞워 지진 다음 그우에 잣과 대추를 박은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결혼식이나 생일과 같은 의례때의 큰상은 물론 제상에도 룡두지짐을 놓는것이 풍습으로 되어오고있는데 평상시에도 특식으로 지져먹고있다.

룡두에는 단백질, 기름, 탄수화물, 광물질, 비타민 등 사람의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또한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영양가가 높을뿐

아니라 체내에 흡수된 독물질에 대한 독풀이작용도 한다.

룡두지짐은 지방에 따라 특색있게 만든다. 평양에서 룡두지짐을 지지는 방법을 보면 우선 룡두를 물에 불구었다가 겉질을 벗기고 물망질을 한

다. 한편 배추김치는 물에 한번 행구어 가늘게 썰고 빨간 고추는 다지고 파는 엷썰다.

돼지고기는 비계가 붙은것으로 삶아 일부는 가

늘게 썰고 일부는 편육을 만든다. 그릇에 룡두김치, 김치, 돼지고기, 고추, 파를 두고 섞은 다음 후추가루를 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다음 지짐판에 돼지고기 기름을 두르고 지짐감을 한국자씩 떠놓아 등글넙적하게 지진다.

이때 비계가 섞인 돼지고기편육 한점을 가운데 둔다.

룡두지짐은 조선의 기호음식, 평양의 4대 음식의 하나로서 그 독특한 맛과 향기, 약리적작용과 영양강화작용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본사기자

##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룡두지짐가공법



옛날 어느 한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고있었다. 가산을 탕진하며 놀기만 하다가 빌어먹게 된 그는 어느날 거리에 나갔다가 닭알 한개를 주어왔다. 희색이 만연하여 집에 돌아온 그는 안해에게 《이젠 나에게 재산이 생겼소.》하고 말하였다.

안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자 그는 닭알을 꺼내보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거요. 이제 10년만 있으면 이것이 큰 재산으로 될거요. 나는 이것을 이웃집 담장에 가져다가 병아리를 깨우겠소. 그 집 병아리들중에서 암놈을 가져다가 키워 알을 낳게 되면 못해도 한달에 15알은 낳겠지? 그것을 키워면 다음해에 그것들이 또 알을 낳을게거든. 이렇게 한해가 지나면 닭알이 300마리의 닭으로 칠게거든. 그것을 내다팔면 금 열냥은 받을수 있소. 금 열냥이면 암소 5마리는 살수 있지. 암소가 새

끼를 낳으면 3년후에 우리 소 25마리를 가지게 되오. 그것들이 또 새끼를 낳게 될거란 말이요.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소가 150마리는 될거요. 소 150마리는 금 300냥이요. 300냥의 금으로 변농이를 하면 리자가 생겨 500냥이 될게 아니겠소. 그 돈으로 밭과 집을

다 맡아먹었소이다. 나으리, 이년에게 증좌를 내려 주십시오.》

《그가 너의 어떤 가산을 맡아먹었던 말이냐?》

게으름뱅이는 자기가 길거리에서 닭알 한개를 주었던 일부터 시작하여 첩을 데려올 생각을 한데까지 일일이 다 말하였다.

고을원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그처럼 큰 가산을 맡아 먹다니... 참으로 증좌를 받아 마땅하도다.》

## 유모아 가산

사고 하인과 첩까지 데려오겠소. 그때가서 우리 잘 살아보자구. 어떻소?》

안해는 귀맛이 당겨 눈을 지그시 감고 듣고있다가 첩을 데려오겠다는 남편의 말에 화가 치밀어올라 닭알을 빼앗아 땅바닥에 힘껏 내던지였다.

게으름뱅이남편은 닭알이 깨지자 성이 독같이 올라 너편네를 한바탕 두들겨패고는 원에게 끌고가 상소하였다.

《이년이 나의 가산을

가산

그러자 너인이 통곡을 하면서 《남편이 말한것들은 아직 현실로 변하지도 않은것이온데 어이하야 나에게 증좌를 지우려 하시나이까?》 하고 발명을 하였다.

그러자 원이 넋지시 말하였다. 《네 남편이 첩을 데려오겠다고 한것도 아직 현실로 되지 않았는데 너는 어찌 질투부터 하는거냐?》

녀인은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말도 못하였다.

## 단편소설

# 여을물소리 (3)

글 현명수, 그림 박봉혁

《그때로부터 이태후 일본에서 사는 조선공민들은 사회주의조국으로의 귀국의 권리를 쟁취하였소. 난 선참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의사를 표명하였소. 이듬해 봄 우리는 귀국하기 위해 집을 싸기 시작하였소. 십여년만에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것이였지. 그런데 나의 장인은 남편부의 울산이 고향이였소. 장인은 울산으로 가겠다고 하였지. 집사람은 무남독녀였소. 나는 그야말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것이요. 한동안 번민하던 나는 끝내 귀국선이 기다리는 니이가다항으로 가지 못했소. 결국 사랑과 의리를 지키자고 귀향길을 버린셈이지. ... 난 남조선에서 유전학연구사로서 일하면서 예측학자의 실상을 낱알이 체험하게 되

었소. 그리고 북에 고향을 둔 나를 당국측에서도 시답게 보지 않았소. 결국 늙어 닦을 내린 곳이 암스테르담에서의 이 민생활이였구려. 나는 이 조직배양연구를 종합하여 고향에 보내려고 이 나라 주체 조선대사관의 문화참사를 찾아갔었는데 그 젊은 문화참사가 글썽... 박인철이라는 그 젊은이는 알고보니 박석진의 아들이 아니겠소. 참 운명이란... 결국 오늘 선생에게 이처럼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

그러하여 윤결은 유진의 연구자료를 가지고 조국으로 떠났고 유진은 그의 귀국을 초조히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이제 나흘후에 윤결은 네델란드에 도착할것이다.

유진이 려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매가 부드러운 접수구의 처녀가 반기며 손을 내미는것이였다. 《부락하신 비행기표입니다.》

려객기는 암스테르담비행장에 정시 착륙하였다. 여러날동안 상쾌한 수림속에서 휴식을 하고 돌아오는 유진은 몸도 여느때없이 튼튼해보였고 기분도 좋았다. 비행기에서 내려서는 그를 숙향이 맞이하였다. 50년세월 회로애락을 함께 나뉘은 귀중한 연인이였고 로쇠한 지금에 와서는 능숙한 간호부이기도 하였다. 유진과 마찬가지로 머리가 하얗게 센 숙향은 지팡이를 짚으며 비교적 활달하게 걸어도 그를 보며 안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드레나 늙은 자기 남편을 꼭 강변에 놓고 온 아이

같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것이다.

더우기 요즘에 와서는 남편의 심장병이 도지는 것 같아 잠시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의 수림속 산책이 아마도 남편의 건강에 확실히 좋은것 같다. 얼굴색이며 걸음걸이, 팔을 휘젓는 품을 보아도

같아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다.

그의 집은 높지 않은 둔덕에 자리잡고있었다. 하얀 울타리를 빙 둘러쳤고 남쪽으로 궁륭식대문을 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현관까지 포도나무 덩굴이 휘감았는데 포도송이들이 다락다락 매달려있었다. 좌우편에는 처음 이 집을 세내던 날



떠날 때보다는 아주 건강해보이니 말이다.

그들은 나란히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마치 오랜간만에 만난 젊은 연인인듯 서로 팔을 끼고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

왔다.

그의 집은 높지 않은 둔덕에 자리잡고있었다. 하얀 울타리를 빙 둘러쳤고 남쪽으로 궁륭식대문을 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현관까지 포도나무 덩굴이 휘감았는데 포도송이들이 다락다락 매달려있었다. 좌우편에는 처음 이 집을 세내던 날

고 속삭였다.

《역시 집이 좋구만. 뛰니뛰니해도 자기 집이 제일이지... 참, 기분이 좋소구려.》

그 말에는 조금도 꾸밈이 없었다. 그리고 집안밖을 정가로이 꾸리는 마누라의 고상한 취미에 대한 찬이기도 하였다. 숙향은 그 대답으로 유진의 팔을 꼭 당겨끼였을뿐이였다.

유진은 윤결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의 문을 열던 그는 한동안 문지방에 우뚝 서있었다. 책상우에 놓인 한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은근한 빛을 띤 은통에 넣은 낡고 퇴색한 사진이였다. 그 사진에는 조약돌이 하얗게 깔린 여울물가에 엇비듬히 누워 배꼽을 드러내고 웃어대는 네명의 벌거숭이꼬마들이 귀염성스럽게 찍혀있었다. 얼굴이 까맣게 타고 한쪽눈을 찡그리며 짓이까는 두개의 대문이지만 보이는 이목을 황홀히 만들고 웃는 소년, 좌측 맨끝에 거의 눈다실

이 앉아있는 장난꾸러기 소년 유진의 어릴적 모습이었다. 60여년전의 어느날 마을의 대사 집에 촬영하러 왔던 습거리의 마을후한 사진사가 우연히 찍게 된것이였는데 사진이 잘되었다면서 절반값만을 받고 나누어준것이였다. 이제는 무척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퇴색이 되고 구김살이 가고 귀퉁이가 험이 나들나들 해졌건만 유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고향의 유물이였다. 언젠가 다심한 숙향이 그 옛 사진을 콧퓨터로 복사하여 새것처럼 재생하여왔었는데 로인에게는 사진뿐만 아니라 그속의 수성천의 여울물이며 자기의 어릴적 조약돌이 하얗게 깔린 여울물가에 엇비듬히 누워 배꼽을 드러내고 웃어대는 네명의 벌거숭이꼬마들이 귀염성스럽게 찍혀있었다. 얼굴이 까맣게 타고 한쪽눈을 찡그리며 짓이까는 두개의 대문이지만 보이는 이목을 황홀히 만들고 웃는 소년, 좌측 맨끝에 거의 눈다실

이 앉아있는 장난꾸러기 소년 유진의 어릴적 모습이었다. 60여년전의 어느날 마을의 대사 집에 촬영하러 왔던 습거리의 마을후한 사진사가 우연히 찍게 된것이였는데 사진이 잘되었다면서 절반값만을 받고 나누어준것이였다. 이제는 무척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퇴색이 되고 구김살이 가고 귀퉁이가 험이 나들나들 해졌건만 유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고향의 유물이였다. 언젠가 다심한 숙향이 그 옛 사진을 콧퓨터로 복사하여 새것처럼 재생하여왔었는데 로인에게는 사진뿐만 아니라 그속의 수성천의 여울물이며 자기의 어릴적 조약돌이 하얗게 깔린 여울물가에 엇비듬히 누워 배꼽을 드러내고 웃어대는 네명의 벌거숭이꼬마들이 귀염성스럽게 찍혀있었다. 얼굴이 까맣게 타고 한쪽눈을 찡그리며 짓이까는 두개의 대문이지만 보이는 이목을 황홀히 만들고 웃는 소년, 좌측 맨끝에 거의 눈다실